

# 호주 낙농 유가공업계 전문기



백 종 희

(농업경제학박사 · 안성산업대교수)

## “세계 유제품 수출액 9% 공장별로 전문생산체제”

### 1. 양뜨레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한 넓은 국토를 소유한 국가이며, 동시에 캥거루와 코알라가 연상되는 나라이다. 필자는 1993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호주 유가공업계 방문단의 일원으로서 호주 낙농·유가공업계를 살펴 볼 기회를 가졌다. 일행은 10월 24일 토요일 저녁 호주 퀸타스(Quantas) 항공사의 점보비행기로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논스톱으로 호주의 휴양도시로 알려진 브리스베인(Brisbane) 공항에 10월 25일 아침에 도착하였다. 한국은 늦가을의 쌀쌀한 날씨였지만 호주는 화창한 봄날씨를 보여주고 있었다.

### 2. 풍광이 수려한 브리스베인

브리스베인은 퀸스랜드(Queensland) 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주의 동부에 있는 풍광이 수려한 도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휴양지로 흔히 제주도를 손꼽듯이 호주에서는 브리스베인과 근처에 있는 황금해안(Gold Coast)을 으뜸가는 휴양지로 여겨 많은 사람들이 휴가의 목적지로 삼는다.

도착한 날이 마침 일요일이어서 공식적인 업무를 볼 수 없었으므로 일행은 브리스베인에서 가까운 동쪽해안인 생추리 만(Sanctuary Cove)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호주 원주민(에버리진)들이 그린 미술품을 감상하며 새로운 대륙에서

호주 도착의 첫 날을 지냈다. 호주로 오는 기내에서 혹은 버스의 이동시 또는 식사중에는 방문단원 중 이미 70년대에 시드니에서 농업경제학을 공부하셨던 분과 호주 무역대표부 서울사무국의 직원 한분이 호주의 문물과 관습, 기후, 지리, 경제일반에 관한 설명을 들려주었다. 위 두분이외의 방문단원 7명 역시 호주에 관한 책을 읽었거나 혹은 거래처가 있거나 또는 호주농장을 소유한 기업체 임원들이어서 많은 사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호주대륙은 1777년 영구 탐험가 제임스 쿡 선장이 보터니 만(현재 시드니의 일부)에 상륙하여 영국의 국토로 선언했다. 그후 호주는 1901년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이 시드니에서 선포되어 6개의 주가 연방으로 결성되어 독립국으로 선포된 나라이다. 호주는 제1차 대전에 참전했고, 제2차 대전에는 일본군의 침략을 받은바 있다. 그리고 호주는 한국과 수교한 나라로서 6·25동란시에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맨먼저 미국과 함께 한국에 파병한 우호국이다. 호주는 우리나라가 가입하고자 하는 국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일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의 약 3배가 된다. 우리나라와 교역관계에 있어 1차상품인 철광석, 육류, 사탕수수, 밀등을 한국에 수출하여 92년에 호주는 약 20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영연방의 구성국가로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이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생활관습의 대부분이 영국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예를들어 자동차의 운전대가 우리와는 반대로 오른쪽에 있으며 자동차의 좌측통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1973년 영국이 유럽공동체(EC)에 가입하고 나서부터는 경제적으로는 태평양연안국가들과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군사·외교부문에 있어 2차대전때 일본의 침략이후 영국보다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제 아시아태평양협력회의(APEC)의 발족이후 호주는 아시아태평양의 연안국가들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주민(에버리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유럽에 선조를 두고 있으므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유제품의 제조기술 역시 유럽에서 많이 도입했다.

호주의 농업 역시 기후와 지형조건에 크게 좌우된다. 때문에 내륙의 사막지역과 황무지보다는 해안지역에 물과 초지가 펼쳐져 있어 낙농업은 내륙지역보다는 해안지역에서, 그리고 낱씨가 더운 북쪽보다는 남쪽지역에서 발달하고 있다. 호주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절기가 우리나라와는 반대이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기후도 반대이기 때문에 남쪽지역이 적도에서 멀어 북쪽지역보다 추운날씨를 보여준다.

브리스베인에서 일행은 두개의 유가공회사(Queensco-Unity Dairy Foods 와 QUF)를 방문하여 공장을 둘러보고 회사설명을 들었다. QUD 유가공회사에서는 딥스(Dips)라는 유제품을 생산하는데 이것은 비스킷류에 찍어먹는 제품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개가 되지 않은 유제품이다. 그리고 QUF 유가공회사는 우유를 제조하여 우유생산이 안되는 호주의 북쪽 노던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지역까지 약 2000Km이상을 냉장차로 수송을 한다. 일행은 브리스베인에서 호주의 국내항공사인 호주항공사(Australia Airlines)의 점비행기로 낙농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빅토리아(Victoria)주의 수도인 멜버른(Melbourne)으로 이동하였다.

### 3. 호주 낙농의 중심지 멜버른

빅토리아주는 1992년 호주 우유생산량 673만 톤의 약 61%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의 경기도 지역과 같은 낙농의 중심지이다. 멜버른은 호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주수도로서 1956년에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도시이기도 하다. 방문단은 멜버른 시내에 위치한 호주낙농공사(Australian Dairy Corporation) 회의실에서 인근의 유가공업체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이 설명회에 참가한 유업체는 봉락(Bonlac Food Limited), 머레이 굴번(Murray Goulburn Co-op. Co Ltd.), 발렌틴(Ballantyne), 내셔널데일리(National Dairies Limited), 락토스(Lactos Pty Ltd),

크라프트(Kraft Food Limited) 등이었다. 이들 유업체의 임원들은 자기회사소개를 짧은시간 내에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위해 여러가지 시청각자료 - 비디오, 슬라이드, 화보등을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다. 이들이 소개한 내용은 회사마다 다른 특색이 있었으나, 공통점은 제품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제품인증을 받은 증명서와 함께 제품전시회에서 언제 어떠한 제품으로 상을 받았는가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유제품관리를 어떻게 위생적으로 처리하는가 하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면서, 현재 외국에 어떠한 규모로 수출하는가에 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한편 회사제품의 텔레비전 광고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브리핑도 했다. 더불어 회사의 재무상태 및 손익관계를 정확히 보여줌으로써 자사 유가공업체가 건설한 기업체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소개가 끝난후 방문단 일행은 유제품이 어떻게 유통되는가를 살펴보기위해 시내의 대형 슈퍼마켓 두곳을 둘러보았다. 슈퍼마켓 자체가 유럽과 비슷하게 차별화 되어 있었다. 보다 고급제품만을 선별하여 파는 슈퍼마켓에서는 여러가지 치즈와 버터, 신선유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몇가지 상품을 대량유통시킴으로써 저가의 제품을 파는 슈퍼마켓에서는 장기보관용 멸균유와 가공치즈를 진열판매하고 있었다. 호주의 유제품 유통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공장에서 직접 슈퍼마켓에 공급하는 방법과 유통회사에서 이를 각 슈퍼마켓에 분배시키는 두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빅토리아 주에는 32개의 유가공 공장이 있는데 이들의 연평균 가공량은 약12만9천톤으로 호주 전체 유가공공장 119개의 평균가공량 5만7천톤보다 훨씬 큰 규모였다. 호주 유가공공장의 연간 평균가공량 5만7천톤은 독일의 5만톤, 한국의 3만9천톤 보다 큰 규모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의 유가공공장 역시 호주 유제품제조시설규모에 비해 그리 작은규모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호주의 유가공공장은 제품 생산을 전문화하고 있었다. 즉 우리나라의 유가공공장은

한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데 비해 호주는 단일품목 또는 2~3가지의 유제품을 공장에 따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호주의 유가공공장에서 농가에게 지불하는 원유가격은 자유화되어 있다. 가공용과 시유용으로 사용되는 원유의 양이 많을수록, 농가의 원유대금 수취가격이 높다. 주(State)에 따라 그리고 유가공공장에 따라 농가에 지불하는 원유가격은 크게 차이를 나타낸다. 유가공공장이 판매를 효과적으로 하는 지역에 속해있는 낙농가는 그렇지 못한 지역의 낙농가에 비해 높은 원유가격을 수취할 수 있다. 예를들어 가공용원유의 호

“

**우리나라의 유가공공장은 한 공장에서 모든제품을 생산하는데 비해 호주는 단일품목 또는 2~3가지의 유제품을 공장에 따라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

주전지역 낙농가의 평균 수취가격이 Kg당 130원(0.24 호주달러)인데 뉴우사우스웨일즈(NSW)지역에서는 150원(0.272 호주달러)이며, 타스메니아(Tas)에서는 110원(0.203 호주달러)이었다. 호주에서 우유총생산량의 28%가 시유용이고 나머지 72%는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1992년 농가에서 수취한 시유용과 가공용 원유의 가중평균가격은 Kg당 약 160원(약 0.3 호주달러)에 해당된다.

멜버른에서는 소형버스를 이용하여 외곽에 있는 호주낙농연구소(CSIRO-DAIRT Research Laboratory)를 방문하였다. 이 연구소에서는 주정부의 재정적 지원으로 유가공업체가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여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연구소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가공 역사가 경성우유 설립부

터는 약 55년이 지났고, 낙농진흥법이 설치된 1962년부터 계산해도 약 30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공업체를 지원하는 연구소가 전무한데 이러한 우리의 현실은 호주와 커다란 대조를 보여주는 점이다.

일행은 낙농연구소에서 다음 행선지로는 버스로 약 3시간 이동하여 타투라(Tatura) 낙농협동조합의 공장을 시찰했다. 이곳에서는 분유와 버터 그리고 치즈를 주로 생산하고 있었다. 이곳에서는 농가에서 집유한 우유중 10%는 시유만을 생산하는 타 유업체에 인도하고, 나머지로 유제품가공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곳의 노무관리는 특이 하였다. 우리나라는 8시간 3교대가 일반적인 형태인데, 이곳서는 12시간 2교대로 4일간을 일하고 4일을 휴식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공장근로자들이 일초의 빈틈없이 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근로자에게 교훈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타투라(Tatura) 낙협은 농민의 조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문경영인을 초빙하여 경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이곳 빅토리아 주에서 우유가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낙농가의 우유생산량중 10%만이 음용유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가공용으로 사용된다. 이는 퀸스랜드 주에서 납유량중 60%가 음용유로 사용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호주에서는 집유선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낙농가는 보다 높은가격을 주는 유업체로 납유를 할 수 있다.

일행은 타투라 낙협을 방문한 후 조합원의 목장을 방문했다. 약 165마리의 젖소를 100ha의 초지에서 사육하는 낙농가로 3명이 일을 하고 있었다. 이 농가는 지난 흉수에 소 10마리를 잃었다고 했다. 마침 착유시간이라 착유를 하고 있었는데 작업은 두사람이 회전형 원형 팔러시스템착유기로 하고 있었다. 일년수입은 비용을 제외하고 약 6,000만원이었다. 가족농으로 일을 하는 전형적인 호주 낙농가로 겨울에는 사료가 적기 때문에 건유를 많이시켜 즉 착유소를 적게하여 한명씩 교대로 한달간의 휴가를 즐긴다고 했다.

호주는 초지에서 젖소를사육하기 때문에 풀이



적은 겨울은 우유생산이 적고 여름에는 풀의 생산이 증대되기 때문에 착유량 역시 증가하여 우유공급의 계절진폭이 매우 크다. 때문에 유가공공장의 가동률이 여름에는 매우 높고 겨울에는 낮아진다. 이러한 점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계절별 차별가격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겨울에 생산된 우유에 대해서는 가격 인센티브를 주어 생산량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호주는 초지중심의 낙농으로 80년대에는 두당 연간 산유량이 3,000Kg이었는데, 최근에는 약간의 곡물사료를 이용하여 연간산유량이 1992년에 4,125Kg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낙농가의 수는 계속 감소하여 1992년에 약 1만5천호이며(한국은 2만8천호), 호당 평균사육두수는 약 110두(한국은 18두)이다. 1992년 총우유생산량은 673만톤으로 우리나라의 3.7배에 해당된다.

이 농장에서 다시 버스로 이동하여 봉락(Bonlac)과 머레이 굴번(Murray Goulburn) 유가공공장을 방문하여 전지분유와 체다치즈가 만들어지는 공정을 살펴보았다. 이 두조합은 호주우유생산량중 시유로는 40%, 유제품으로는 50%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버스로 이동할 때 호주의 넓은초지가 과연 낙농을 할 수 밖에 없는 자연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인구가 약 1,600만 밖에 안되어 구매력이 낮다. 때문에 유제품을 수출조금을 지급하여 해외에 수출하여 수급을 조절하고 있다. 호주는 세계 우유생산량의 2%를 생산하는데 비해 수출은 세계유제품수출액의 9%를 점하고 있다. 두개의 유가공 공장을 방문한 후

호주는 초지에서 젖소를 사육  
하기때문에 풀이적은 겨울은  
우유생산이 적고 여름에는 풀의 생산이  
증대되기 때문에 착유량 역시 증가  
하여 우유공급의 계절진폭이 매우크다.

일행은 다시 앨버리(Albury) 공항에서 호주국내 항공사인 앤세트항공사(Ansett Airlines)의 프로펠러비행기로 약1시간 가량 비행하여 시드니에 도착하였다.

#### 4. 아름다운 항구도시 시드니

시드니는 호주에서 제일 큰 항구도시로 세계 3대 미항(美港)의 하나이다. 특히 시드니 항구에 1973년에 건축되어 올해로 20년이 된 조개가 겹친 모양의 오페라 하우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2000년에는 이곳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시드니는 호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대도시이므로 이곳에서의 우유수급은 우선 시유를 어떻게 생산하여 유통시키는가가 관심사였는데 에이시 에프 (ACF) 유가공공장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시유는 45%는 플라스틱용기에 그리고 45%는 종이팩에, 나머지는 유리병으로 시유를 포장하여 공급하고 있었다. 극소량은 영국과 비슷하게 가정배달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원유의 약 40%는 기차를 이용하여 반경 300Km 지역에서 수송해 오고 60%는 반경 200Km에서 트럭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수송하는 것인데 점차 트럭에의한 수송비중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후 치즈전문 생산업체인 베가(Bega) 회사와 네슬레(Nestle) 종합식품업체를 둘러 보았다. 네슬레사는 일본인이 호주지역의 경영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것은

일본이 얼마나 많이 호주지역경제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이다.

시드니에서의 모든 일정을 끝낸후 일행은 다시 시드니 공항에서 김포로 향하는 퀸타스 항공사 비행기에 올랐고, 기내에서 한국이 94년 월드컵 축구대회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낭보를 접하게 되었다. 한편 일행은 우루과이 라운드(UR) 타결 이후 호주의 유가공업체가 어떠한 형태로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 5. 에필로그

이번 호주 낙농·유가공업계의 방문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었다. 호주는 땅이 넓다는 장점을 가졌고, 우리나라는 인간자본(Human Capital)이 많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국토가 넓기 때문에 전지역을 모두 수리시설화 할 수 없으므로 전지역의 85%가 빗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목장들이다. 이러한 점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리시설이 잘 되어있고, 낙농가는 주어진 인적자본을 어떻게 잘 훈련시켜 우유생산비를 절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낙농선진국 역시 낙농업에 의한 소득수준이 다른직종에 비해 높지 않고, 자연을 상대로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기술이 발달한 호주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홍수로인해 젖소를 10두 잃어버린 낙농가의 심정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유업체는 세계시장을 바라보고 기술개발에 열중하여 일본과 동남아국민의 기호에 맞는 유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호주유업체의 기업정신을 배워야함을 깨달았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란 격언처럼 호주 낙농·유가공업계의 시찰은 앞으로 유제품수입자유화에 대응하여 우유의 생산·가공·유통정책과 수출지원정책에 있어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귀중한 기회였다.